

東廟의 明 使臣이 지은 懸板에 대한 考證과 그 외교적 문화적 의미에 관하여 *

— 壬辰倭亂 직후부터 丙子胡亂 직전까지

홍 윤 기 **

<목 차>

1. 서론
2. 東廟의 明 使臣이 지은 懸板
 - 2.1 <顯聖保藩>
 - 2.2 <顯聖殿>
 - 2.3 <萬古標名>
 - 2.4 <朽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
 - 2.5 <千古完人>
3. 결론

1. 서론

東廟는 역사 《三國志》와 소설 《三國演義》에 나오는 대표적 영웅의 하나인 關羽를 모시는 廟宇로, 보물 제142호이다. 그동안 東廟에 관해서는 주로 동묘와 관련된 역사 자료의 수집¹⁾과 건축적 특징²⁾이나 정비 및 활용계획³⁾

* 본 논문은 2015년 5월 30일 고려대에서 개최되었던, 중국어문연구회와 고려대중국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춘계학술대회의 대주제 “《삼국지연의》 과거·현재·미래” 아래에 발표하였던 <東廟 懸板에 대한 考證과 그 외교적 문화적 의미에 관하여>를 수정 보완한 논문이다. 東廟 文物의 사진 촬영에 협조해준 김영중 종로구청장과 문화과 공무원 및 동묘관리소 소장과 관리원 여러분, 그리고 발표대회의 사회자 김경천 성균관대 교수와 토론자 서성 배재대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고려대 부교수

및 소장유물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보고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동묘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懸板과 柱聯에 대한 정식적인 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⁵⁾ 기존의 보고서에서도 동묘의 현판과 주련에 관한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언급이 있기는 하였지만, 현판과 주련이 걸려 있는 위치에 대한 보고내용도 일부 부정확하고, 현판과 주련의 漢字에 대한 判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판과 주련의 작가와 제작시기 및 나아가 외교적 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는 말 할 거리도 없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東廟의 명나라 使臣이 지은 懸板의 漢字를 判讀하고, 作家와 制作時期를 考證하고 나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외교적 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있다.

동묘의 正殿 안에는 모두 50개의 懸板과 柱聯이 걸려 있다.⁶⁾ 懸板이 22개, 柱聯이 28개(14쌍)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懸板이란 東廟 正殿의 들보에 걸려 있는 가로 형태의 글씨 걸개나무판을, 柱聯은 正殿의 기둥에 걸려 있는 세로 형태의 글씨 걸개나무판을 일컫는다.

[그림 1]은 동묘 정전 안팎에 걸려 있는 모든 현판과 주련의 위치 및 본고가 다루는 현판의 제작 순서이다. 막대기 표시는 현판과 주련이 걸려 있는 위치이다.⁷⁾ 막대기 표시 아래와 옆에 한글 해설이 달린 것이 본고가 다루는 현판 5개

- 1) , 《東廟자료집》, (서울: 종로문화원), 1997.
- 2) 배병선 외, 《東廟의 建築》,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 3) , 《동관왕묘 종합정비계획》, (서울: 종로구청), 2011.
- 4) 장경희 외, 《동관왕묘 소장유물 기초학술 조사보고서》, (서울: 종로구청), 2012.
- 5) 東廟 현판과 주련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判讀을 시도한 기존의 報告로는 중국의 彭建平, <漢城關帝廟—東廟>, 《四川文物》(2004년 5期)과 한국의 장경희, 《동관왕묘 소장유물 기초학술 조사보고서》가 있다. 이들 보고는 전면적이지도 않고, 判讀에 漏落이 많고 誤讀과 誤譯도 심하다.
- 6) 《동관왕묘종합정비계획》과 《동관왕묘 소장유물 기초학술 조사보고서》는 모두 49개의 懸板과 柱聯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大義本春秋豈客賊子亂臣倖逃斧鉞> 柱聯 하나가 빠졌다. 동묘 正殿에 걸려있는 현판과 주련은 실제로 모두 50개다. 동묘 묘역 안에는 동묘 정문 위에 걸려 있는 <東廟> 현판을 포함하여 모두 51개의 현판이 있다.
- 7) 허공에 표시된 긴 막대기가 懸板이며, 기둥에 붙어 있으며 검은 점이 있는 짧은 막대기가 柱聯이다.

이다. 예를 들어 막대기 표시 아래의 “4칙봉삼계”는 남쪽 방향을 향해서 걸려 있다는 뜻이며, “4”는 시기적으로 네 번째로 제작된 현판이라는 뜻이고, “칙봉삼계”는 현판의 앞 글자가 ‘勅封三界’ 4자로 시작한다는 뜻이다.

번호	현판 내용	제작시기	서기년 음력월	제작자 정보
1	顯聖保藩	大明萬曆二十八年庚子九月吉日	1600.09	杜潛(副使)
2	顯聖殿		1601?	明使
3	萬古標名	大明崇禎四年九月朔	1631.09	欽差登遼總鎮標下總理實授遊擊將軍都指揮僉事江定國立
4	勅封三界伏魔大帝 神威遠震天尊關聖 帝君	崇禎甲戌仲春吉日立	1634.02	欽差安島衆聯屬國副總兵程龍 書 天都使臣 程龍之印
5	千古完人	崇禎丙子歲仲秋上浣之吉	1636.08	襄平弟子白登庸熏沐立

〔표 1〕 東廟의 明나라 使臣이 지은 懸板 일람표

동묘에 걸려 있는 22개의 현판은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明나라 使臣의 의해서 지어진 현판, 둘째는 朝鮮의 國王에 의해서 지어진 현판, 셋째는 淸나라 使臣 및 商人에 의해서 지어진 현판, 넷째는 大韓帝國의 高宗 및 알 수 없는 이에 의해 지어진 현판이다.

〔표 1〕은, 東廟의 明나라 使臣이 지은 懸板 5개의 일람표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明나라 使臣이란, 朝鮮에 파견된 明나라 官員을 일컫는 말이다. 앞으로 본인은 東廟의 모든 懸板과 柱聯에 대한 考證과 그 외교적 문화적 의미에 관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동묘의 현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의의가 있다.

2. 東廟의 明 使臣이 지은 懸板

아래 懸板의 고찰 순서는 현판이 제작된 시기 순서이다.

2.1 <顯聖保藩>

(1) 사진⁸⁾



(2) 원문판독

[中]9) 顯聖保藩

[右] 大明萬曆二十八年庚子九月吉日

[左] (정보 없다)

(3) 번역

[中] 聖人(關羽)의 님을 나타내시어(顯) 울타리 나라(藩: 朝鮮)를 지켜주시

8) 현판의 사진들은 2014년 8월부터 종로구청의 허락 아래 10여 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하였다. 렌즈는 35mm, 50mm, 85mm를 사용하였다.

9) 현판의 글씨 배치 구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가운데에는 큰 글씨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고, 오른쪽에는 작은 글씨로 제작 연월일을, 왼쪽에는 작은 글씨로 작가의 관명과 이름을 기록한다. 본고는 현판 글씨의 배치 구도의 가운데, 오른쪽, 왼쪽을 [中]·[右]·[左]로 표시하였다.

다(保)¹⁰⁾

[右] 明나라 萬曆 28년 庚子년 음력 9월 길일

[左] (정보 없다)

聖은 關羽의 님. 藩은 藩國, 일반적으로 고대 왕조의 屬國 또는 諸侯國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朝鮮을 뜻한다.

(4) 제작 시기

1600년 음력 9월 음력 1일. 朝鮮 宣祖 33년. 萬曆은, 明나라의 제13대 황제인 萬曆帝(1563-1620)를 가리키며, 廟號는 神宗이다. 萬曆 28년은 서기 1600년이고, 庚子年이다. 吉日은 길한 날, 또는 朔日(초하루)을 뜻한다.

(5) 작가

현판 안에는 정보가 없다.

考證과 根據: 東廟 懸板을 고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 《海東聖蹟誌》¹¹⁾이다. 《海東聖蹟誌·藝文考·匾類·東廟》에 顯聖保藩에 대하여 “杜潛”이라고 하였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副使”라고 표시하였다.¹²⁾ 《朝鮮王朝實錄》原文에 따르면, “杜潛”에 관한 기록은 선조 32년(1599) 4월 19일부터 선조 34년(1600) 1월 3일까지 모두 37건이 나온다. 현판의 기록(1600)과 일치한다. 《朝鮮王朝實



[그림 1] 《海東聖蹟誌》겉면

錄》은 그의 직함을 “海防監軍道副使” 또는 “監軍副使”¹³⁾ 또는 “按察使”¹⁴⁾ 등으

10) 장경희, 《동관왕묘-소장유물 기초학술 조사보고서》, 종로구청, 서울, 2012. (이하 기준 연구라고 줄여 부른다)는 “현성하여 나라를 지키도다”라고 번역하였다.
 11) 《海東聖蹟誌》의 겉면에는 “光緒丙子孟秋鐫”, “檀國顯聖殿藏板”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876년 丙子년 음력 7월에 새겨졌고, 檀國顯聖殿이 보관하고 있는 板刻이라는 뜻이다.
 12) 《海東聖蹟誌》가 어떤 원전을 참고하여 “杜潛”이라고 기록 표시했는지는 찾지 못했다.
 13) 선조 32년(1599) 10월 17일 기록.

로 기록하였는데, 실제로는 從4品인 按察司副使이다. 朝鮮의 申晷(1613-1653)이 저술한 野史인 《再造藩邦志》¹⁵⁾에는 그의 직함과 인적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이 나온다.

황제가 이에 欽差提督 南北水陸官兵 朝鮮防海禦倭摠兵官 左軍都督府都督同知 李承勛으로 대군을 통솔케 하고, 欽差協理兵備 山東按察司副使 杜潛으로써 監軍하게 하니, 통솔한 군사가 1만 5천여 명이였다. …… 두잠은 자는 孔昭. 호는 見田, 산둥 東昌 高唐州 사람인데, 경진년(1580, 선조 13)에 진사가 되었고, 몸가짐이 簡約하였다.¹⁶⁾

杜潛은 휘하에 군사들을 직접 거느리고 작전을 펼치는 장수가 아니라, 장수의 작전을 감찰하는 “監軍”이었으며, 감찰대상 병력의 규모는 1만 5천명에서 2만 4천명이었다.¹⁷⁾ 《亂中雜錄·亂中雜錄四·庚子》의 기록에, “9월 經理 萬世德과 監軍 杜潛이 대군을 거느리고 모두 명나라로 돌아갔다.”¹⁸⁾라고 하였는데, 庚子年(1600)이 바로 이 현판이 만들어진 1600년이다. 따라서 이 현판은 그가 명나라로 되돌아가기 직전에 기념으로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明史》 원문에는 그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明實錄》 원문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16건 있다.

(6) 역사배경과 의미

南廟는 선조 31년(1598)에 서울 승례문(남대문) 밖에 처음으로 건립되었

14) 선조 33년(1600) 4월 13일 기록.

15) 《再造藩邦志》는 《大東野乘》에 실려 있다.

16) 《再造藩邦志·五》: “天子乃以欽差提督南北水陸官兵朝鮮防海禦倭摠兵官左軍都督府都督同知李承勛。統率大軍。以欽差協理兵備山東按察司副使杜潛監軍。所統一萬五千餘人。……潛字孔昭。號見田。山東東昌高唐州人。庚辰進士。持身簡約。”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를 따랐다. 앞으로 “한국고전번역원”으로만 표기한다.

17) 朝鮮의 趙慶男의 野史인 《亂中雜錄·亂中雜錄四·己亥》는 杜潛의 監察 병력의 규모가 2만 4천여 명이라고 하였다.

18) 《亂中雜錄·亂中雜錄四·庚子》: “九月。經理萬世德。監軍杜潛。領大軍俱回天朝。” 한국고전번역원.

고, 東廟는 선조 32년(1599) 8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선조 34년(1601)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위 현판(1600)은 東廟의 공사가 완료된 때(1601)보다 먼저 제작된 것이다. 東廟가 완공되기도 전에, 그것도 건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닌 현판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도 이 현판은 1601년 동묘가 완공되기 전에 제작되어 南廟 또는 다른 곳에 걸려 있다가, 어떤 이유로 東廟로 옮겨 오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현판은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동묘의 正殿 안에 걸리지 못하고 정전 밖에 옆 자리에 걸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 현판이 언제 東廟로 옮겨 왔는지는 알 수 없다. 《海東聖蹟誌》는 東廟에 항목에 이 현판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海東聖蹟誌》가 만들어진 “光緒丙子孟秋”, 즉 1876년 7월 이전에 이 현판이 東廟로 옮겨졌음을 뜻한다.¹⁹⁾

(7) 소설가로부터 비롯된 顯聖

“顯聖”을 關羽와 관련지어 造字한 것은 소설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선 關羽를 “聖”으로 표현한 것으로는, 元代 至治(1321-1323)년간에 간행된 《至治新刊全相平話三國志》의 “(그들은) 聖(관우)께서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하였다(言聖歸天)”로부터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죽은 관우의 넋이 나타나는 “顯聖”의 아이디어는 明代 嘉靖 壬午(1522)본 《三國志通俗演義》 권16의 “玉泉山關公顯聖”章에서 찾을 수 있다. 관우의 넋은 普淨禪師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그 뒤로 가끔 관우의 넋이 나타났는데, 고을 사람들은 그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낄 수 있었다. 이에 玉泉山 꼭대기에 廟를 짓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제사를 올렸다.(後往往顯聖, 鄉人累感其應, 因此就於山頂上建廟, 四時致祭.)”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關羽의 넋이 나타나는 것을 “顯聖”으로 표현하고 있다. 《三國志通俗演義》에는 모두 14차례에 걸쳐 “顯聖”이라는 말이 나온다. 關羽는 이로부터 神聖化 된다. 이는 顯聖殿의 “顯聖”은 소설가의 말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후 조선에서 壬辰倭

19) 南廟에서 東廟로 옮겨온 懸板으로는 “<顯靈昭德武安王廟>2”가 있다.

亂과 丁酉再亂이 터져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면서, 죽은 관우의 넋이 나타나서 倭軍을 무찔렀다는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顯聖”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東廟의 西廡에 세워져 있는 <大漢朝忠節武安王讚揚銘> 뒷면에 새겨져 있는, 英宗顯孝大王御製御筆의 <顯靈昭德武安王廟> 비문의 기록에 따르면, 丁酉再亂 때 명나라 장수들이 일본군과 싸울 때, 關羽가 顯靈하여 전쟁을 도왔다 고 한다.

<顯靈昭德武安王廟> 비문: 國都 漢陽의 동쪽과 남쪽에 關王廟가 있다. 하나는 崇禮門 밖에 있는데, 丁酉년(선조 30년, 1597)에 명나라 조정의 명을 받고 우리나라를 救援하기 위해 온 여러 장수들은 關王이 顯靈하여 전쟁을 도운 일 때문에, 각각 物資와 노동력을 내놓아 (관왕묘를) 지었는데,..... 20)

<顯聖保藩> 현판의 내용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8) <再造藩邦>과 <顯聖保藩>

1600년 9월 명나라의 杜潛이 <顯聖保藩>을 쓰기 1년 전인 1599년 10월 조선의 宣祖는 <再造藩邦>이라는 현판을 써서 내건 적이 있다.

<朝鮮王朝實錄>: 御書로 再造藩邦 네 글자를 크게 쓰고서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글씨는 戴中軍이 이미 보았으니 摹寫하여 陽刻으로 板에다 새긴 다음 軍門 邢玠의 生祠堂 상인방 사이에 걸도록 하되, 經理가 떠나기 전에 걸도록 하라. 이 글씨는 모사한 뒤에 도로 들어라.”²¹⁾

<再造藩邦>의 “再造”는 “다시 생명을 주다”라는 뜻으로 크나큰 은혜에 대한

20) <顯靈昭德武安王廟> 비문: “國都漢陽東南有關王廟, 一則在崇禮門外. 歲丁酉, 皇朝欽差東援諸將, 因其王之顯靈助戰, 各捐物力營建, ……”

21) <朝鮮王朝實錄> 宣祖32年(1599) 10月 5日: “以御書再造藩邦四大字, 傳于政院曰: 此書, 戴中軍曾已見之, 摹寫以陽字刻板, 懸于那軍門生祠堂相間, 而經理未發行前懸之. 此書則摹寫後還入.”

감격을 표시하는데 많이 쓰이는 말이다. “藩邦”은 “朝鮮”을 가리킨다. 명나라의 장수 邢玠가 명나라로 귀국할 때, 조선의 宣祖가 “(명나라 황제께서) 조선을 살려주시었다”라는 뜻의 현판을 직접 써서 내걸 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선조는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그 내용이 부끄러웠는지 이 현판을 명나라 사신의 송별식 때만 쓰고 바로 거둬들이라는 전교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 조선 사람 鄭琢(1526-1605)은 《藥圃集》에서 “再造藩邦”은 宣祖가 원해서 쓴 것이 아니라 명나라 장수 邢玠가 간곡히 청하여, 宣祖가 사양하지 못하고 써 준 것이라고 하였다.

《藥圃集》: 이에 군문 총독 邢玠가 돌아가려 할 때 주상께, ‘再造藩邦’ 네 글자를 써서 줄 것을 간곡히 청하여서, 주상이 사양하지 못하고 써서 형개를 전별하였다. …… 이는 성스러운신(명나라) 천자께서 再造하신 망극한 은혜(를 기리는 것)이다.²²⁾

명나라 장수 邢玠의 요청으로 지어진 <再造藩邦>과 명나라 監軍 杜潛에 의해 지어진 <顯聖保藩> 두 현판은 모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였을 때 명나라 황제와 聖스러운 관우의 넋이 도와주어 藩國인 조선을 살려주고 지키게 해주었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22) 《藥圃集·藥圃先生文集卷之三·安東府募刊御筆屏風後跋》: “軍門總督邢公玠將還。以再造藩邦四字。固請上書贈。上辭不獲。書以驕之。…… 寔聖天子再造罔極之恩。” 한국고전번역원.

2.2 < 顯聖殿 >

(1) 사진



(2) 원문판독

[中] 顯聖殿

[右] (정보 없다)

[左] (정보 없다)

(3) 번역

[中] 聖人(관우)의 넋이 나타나신(顯) 것을 기리는 殿

[右] (정보 없다)

[左] (정보 없다)

顯聖은, 신성한 사람이 죽은 뒤에 그 넋이 나타나는 것, 또는 나타난 넋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關羽의 넋을 가리킨다.

(4) 제작 시기

현판 안에는 정보 없다.

考證과 根據: 먼저 南廟 < 顯聖殿 > 현판의 제작시기를 살펴보자. [그림 2]의 《海東聖蹟誌·藝文考·匾類》가 배열한 南廟의 扁額의 배열순서 방식은 다음과 같다.

藝文考	匾類	南廟	肅廟御筆 東廟同	千秋義烈	英廟御筆 東廟同	顯聖昭德武安王廟	顯聖殿 東廟同	孤忠大節	威震三韓	古今一人	勅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振天尊關聖帝君	伏魔聖帝
						明使	龔 渤 參將	李承勛 都督	葉日益	袁見龍 南廟	張九昌 差官	

[그림 2] 《海東聖蹟誌·藝文考·匾類》

먼저 조선의 제 19대 국왕 肅廟(肅宗: 1661-1720)와 제 21대 국왕 英廟(英祖: 1694-1776)의 御筆 현판을 시간 순서대로 먼저 제시한 다음에, 명나라 사신의 懸板을 시간의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顯聖殿>은 명나라 사신이 쓴 懸板 가운데 제1 순서에 배치되어 있고, “東廟同”이라는 풀이를 달았다. 南廟 懸板에 대한 《海東聖蹟誌》의 작가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明使·龔渤·李承勛·葉日益·袁見龍²³⁾·張九昌·毛有壽·江定國·李陽春·程龍.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 등의 기록에 근거하여 작가들이 조선에 머문 기간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머문 기간은 ()안에 표기하였다. 明使(1598?)·龔渤(1599)·李承勛(1599-1600)·葉日益(?)·袁見龍(1619-1620)·張九昌(?)·毛有壽(1624)·江定國(1631)·李陽春(1632)·程龍(1633-1634). 일부 인물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것은 《海東聖蹟誌·藝文考·匾類》의 현판의 제시 배열순서가, 기본적으로 역사서 列

23) 袁見龍과 程龍을 나란히 늘어놓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내용의 현판의 작가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배치한 것일 뿐이다. 나중에 程龍은 맨 뒤에 따로 다시 배치하고 있다.

傳의 인물 배열순서처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南廟 <顯聖殿> 현판은 龐渤(1599)의 <孤忠大節> 현판 보다 앞서 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된다. 南廟는 선조 31년(1598)에 건립되었으므로, 南廟 <顯聖殿> 현판은 1598년에서 1599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남묘 <顯聖殿> 현판에 관한 기록 아래에 “東廟同”이라는 注는 제작 시기나 인물이 동묘와 같다는 뜻이 아니라 글자는 내용이 같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존 동묘의 <顯聖殿> 현판이 동묘가 완공되었던 1601년보다 보다 앞서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건물이 완공되면 제일 먼저 건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임을 볼 때, 동묘 <顯聖殿> 현판은 동묘가 완공된 1601년 8월 이후 그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東廟 <顯聖殿>(1601) 현판은 <顯聖保藩>(1600) 현판 보다 늦게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5) 작가

현판 안에는 작가에 관한 정보가 없다.

考證과 根據: 《海東聖蹟誌·藝文考·匾類·南廟》는 남묘 <顯聖殿> 懸板이 “明使”, 즉 明나라 使臣이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東廟의 <顯聖殿> 懸板의 작가 또한 明나라 使臣일 가능성이 높다. 동묘가 완성된 1601년 무렵의 명나라 사신으로 여겨진다.

(6) 역사배경과 의미

四庫全書 기록 안에서 중국 關羽廟의 正殿을 가리켜 “顯聖殿”으로 명명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중국 본토 41곳의 關羽廟와 홍콩과 마카오를 비롯한 14개국 37곳의 關羽廟 가운데 그 正殿을 顯聖殿으로 부르는 예는 한 곳도 없었다.²⁴⁾ 이는 東廟 正殿의 “顯聖殿”이라는 이름은 壬辰倭亂 때 관우의 넋이 조선을 도와주었다는, “顯聖保藩”의 뜻이 짙게 배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4) 중국 국내의 關羽廟를 소개하는 <http://www.guandimiao.org/>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이는 중국의 사신들이 조선에 와서 關羽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神聖化하였고, 그 목적은 朝鮮의 明에 대한 忠節을 강조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2.3 <萬古標名>

(1) 사진



(2) 원문판독

[中] 萬古標名

[右] 大明崇禎四年九月朔

[左] 欽差登遼總鎮標下總理實授遊擊將軍都指揮僉事江定國立²⁵⁾

(3) 번역

[中] 萬代에 걸쳐 그 이름 드날리시다

[右] 위대한 明나라 崇禎 4년 9월 1일

[左] (직함) 欽差登遼總鎮標下總理實授遊擊將軍都指揮僉事인 江定國이 세

25) 彭建平, <漢城關帝廟—東廟>의 논문에서는, “欽差登遼總鎮標總理 …… 江定國立”이라고 하였다. 그 밖의 기존 연구도, “萬古標名 만고에 명성을 떨치도다” “大明崇禎四年九月朔 欽差登遼總鎮標總理 …… 江定國立 대명 승정 4년(1631) 9월 초하루날 흠차등료총진표총리 강정국이 세움”이라고 하였다. “下”자와 “實授遊擊將軍都指揮僉事”가 빠졌다.

우다.

萬古는, 萬代 또는 萬世의 뜻. 標名은, 이름을 드날리다(顯名)는 뜻이다.

(4) 제작 시기

1631년 음력 9월 1일. 朝鮮 仁祖 9년. 崇禎은 명나라 崇禎帝의 연호로, 崇禎 4년은 1631년. 朔은 초하루이다.

(5) 작가

江定國이다. [그림 3]은 <萬古標名> 현판에 기록된 江定國의 職銜 부분이
다. “欽差登遼總鎮標下總理實授遊擊將軍都指揮僉事”의 뜻을 살펴보자. 欽差는
황제가 임명하는 임시적인 差遣으로 황제의 명을 받들어 조정 밖으로 나가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官員이라는 뜻이다.²⁶⁾ 登과 遼는 명대의 행정 구역 이
름으로 登州府(지금의 山東 蓬萊 일대)와 遼東都司²⁷⁾(지금의 遼東 遼陽市 일
대)를 줄여서 부른 것이다.²⁸⁾ 登州府와 遼東都司는 山東承宣布政使司에 속해
있었다. 總鎮은 總兵의 별칭이며, 정식 명칭은 總兵官이다. 總兵官은 엄격히 말
해서 官銜이 아니라 職銜이다. 總兵官은 일반적으로 公侯나 지방의 都督이 겸
임하였다. 總兵官은 無品級의 무관 官名으로, 거느리는 병사나 편제 정원이나
위계가 모두 일정하지 않았다.²⁹⁾ 여기에서의 總兵官은 黃龍(?-1633)을 가리
키는 것 같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병된 總兵官이 거느렸던 군사의 규모는
약 3-4천 명쯤이었다.³⁰⁾ 標下는 部下 또는 屬下의 뜻. 總理는 總兵官과 비슷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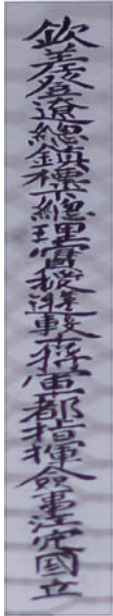
26) “欽差”는 명대에 지방 정부로 파견된 總兵官들의 職銜 앞에는 일반적으로 붙었던 것 같다.

27) 정식 명칭은 “遼東都指揮使司”.

28) 명나라 때는 一級의 地方行政區에는 承宣布政使司와 提刑按察使司와 都指揮使司를 나누어
두어서 각각 行政과 司法과 軍事 업무를 보게 하였다. 承宣布政使司에는 左右承宣布政使
각 1인을 두었는데, 일급행정구의 최고 행정장관이었다. 布政司는 흔히 省이라고 불렀으
며, 그 아래에는 순서대로 道와 府와 縣이 있었다. 1개의 省에서 司法는 提刑按察使司가
맡아보았고, 軍事는 都指揮使司가 맡아보았다. 布政司와 按察司와 都司를 합쳐서 “三司”라
고 불렀는데, 省級의 行政區에서 最高機關이었다. 三司의 品階는 都指揮使司가 가장 높았
고, 그 장관인 都指揮使는 正2품이고, 布政司가 그 다음인데, 左, 右布政使는 모두 從2품
이고, 提刑按察使司의 장관인 提刑按察使는 正3품이다.

29) 《明史·職官志》：“總兵官、副總兵、參將、遊擊將軍、守備、把總、無品級、無定員。”

위치에서 總兵官의 軍務와 權利를 분담하는 職銜으로 여겨진다.³¹⁾ 實授는 정식으로 임명하였다는 뜻. 遊擊將軍은, 總兵官 아래의 參將 아래의 武官이다. 都指揮僉事は 都指揮使司의 소속 관원으로, 그 안에는 장관인 都指揮使(正2品) 1인, 그 아래 都指揮同知(從2品) 2인, 그 아래 都指揮僉事(正3品) 4인이 있었다. 따라서 그의 직함에 담긴 뜻을 거칠게나마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명나라) 황제가 登州府와 遼東都司(登遼)로 파견한(欽差) 총병관(總鎮)의 부하(標下) 총리(總理)가 정식으로 관직을 준(實授) 遊擊將軍이며 都指揮僉事”³²⁾. 그의 직함은 그 수식 구조가 복잡하지만, 그는 최종적으로 正3品の 지방 관원에 지나지 않는다. 遊擊將軍과 都指揮僉事は 보통 겸직을 많이 하였던 것 같고,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병된 遊擊將軍과 都指揮僉事は 대략 1,500-3,500명 안팎의 병력을 거느렸던 것으로 추측된다.³³⁾ 한편, 江定國의 직속상관인 靑島의 都督 黃龍



[그림 3]

- 30) 《亂中雜錄·亂中雜錄四·己亥》: “명 나라 장수 章總兵이 군사 4천 명을 거느리고 (天將章總兵領四千兵。) 姜沆《看羊錄·賊中封疏·涉亂事跡》: “정유년(1597) 5월 17일 명나라 장수 楊總兵(楊鎬)이 서울에서 왜적을 방어할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 (丁酉 …… 五月十七日。天將楊總兵。自京師領防倭兵三千。)” 한국고전번역원.
- 31) 《明史·兵志三》: “明 隆慶(1567-1572) 년간에 總兵官인 戚繼光이 薊와 遼 지역을 總理하며,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업무를 맡았다. (隆慶間, 總兵官戚繼光總理薊、遼, 任練兵事)” 《明史·戚繼光傳》: “薊鎮에 이미 總兵이 있었는데, 또한 總理를 두어 사무와 권리를 나누었다. 여러 장수들은 대부분 이를 관망하였다. (薊鎮既有總兵, 又設總理, 事權分, 諸將多觀望)”
- 32) 이 직함의 總理와 實授의 수식 관계는 이해하기 어렵다. 總兵의 屬下 總理가 어떻게 정3품의 관직인 都指揮僉事를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때 명나라가 청나라와 皮島海戰을 벌이면서, 戰時에 임시로 지방의 군사담당 무관인 總理가 임명한 직함인 것 같다. 한편, 江定國의 직속상관인 黃龍의 직함이 《朝鮮王朝實錄》 仁祖 9年(1631) 5월 2일 기록에 나온다: “黃老爺는 직함인 欽差鎮守登遼東江等處地方都督府僉事이고 이름은 黃龍이며……(黃老爺職銜, 則欽差鎮守登、遼、東江等處地方都督府僉事, 其名黃龍, ……)”
- 33) 《再造藩邦志·六》: “유격장군 李香에게 南兵 3천 5백을 거느리게 하여 날짜를 기약하여 압록강을 건너왔고, …… 유격장군 서도지휘첨사 萬邦孚는 수병 2천을 거느리고 유격장군 도지휘첨사 張良相은 수병 1천 5백명을 거느리고, 유격장군 도지휘첨사 白斯淸은 수병 1천 5백을 거느리고, 도지휘사 張榜은 보병 4천 5백을 거느리고, 유격장군 吳宗道는 수병 2천 명을 거느리고 요해지에 나누어 주둔게 하였다. (遊擊將軍李香領南兵三千五百。刻期渡江。…… 遊擊將軍署都指揮僉事萬邦孚領水兵二千。遊擊將軍都指揮僉事張良相領水兵一千五百。遊擊將軍都指揮僉事白斯淸領水兵一千五百。都指揮使張榜領步兵四千五百。遊擊將軍吳宗道領水兵二千人。分住要害。)” 한국고전번역원.

은 한때 반란군에게 갇혀 있다가 朝鮮의 도움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으며, 江定國은 黃龍이 보낸 자였다.³⁴⁾ 조선의 신료들은 그의 직함을 믿지 못하였으며, 그를 부당한 예물을 요구하는 불량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³⁵⁾ 江定國은 《朝鮮王朝實錄》의 원문에 仁祖 9년(1631) 9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모두 3번 언급된다. 《朝鮮王朝實錄》은 그의 직함을 “椴島差官遊擊”과 “都督差遊擊”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방관이 보낸 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江定國이 현판에 자신이 새긴 직함보다 간단명료하고 직함의 거품이 빠졌다. 江定國은 《明史》에는 나오지 않으니, 명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아니다.

(6) 역사배경과 의미

이 현판이 써지기 약 3개월 전인, 1631년 6월에 皮島海戰이 벌어진다. 1627년 丁卯胡亂으로 朝鮮을 제압한 後金(이후 淸)은, 1631년 5월 27일 明과

34) 《朝鮮王朝實錄》 인조 9년(1631) 11월 28일: 처음에 椴島の 都督 黃龍이 탐학하고 비루한 것을 자행하여 섬의 대중이 원한을 품자, 將官 王應元 등이 무리를 이끌고 난을 일으켜 황룡을 私第에 감금하였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조선)가 격문을 보내어 문죄하자 섬의 대중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오늘의 변은 도둑이 자초한 것이긴 하지만, 조선이 만약 우리의 양곡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격문을 보내어 문죄하면, 온 섬 사람들이 똑같이 반역의 무리가 될 것이고 또 바로 굶어 죽게 될 염려가 있다.” 하고, 이에 耿仲裕와 王應元 등 10여인을 잡아 참수하고 도둑을 부축하여 나오게 해서 일을 보도록 하였다. 도둑이 유격 江定國을 보내 와 식량을 요구하였다. (初, 椴島都督黃龍, 恣行貪鄙, 島衆忿恨. 將官王應元等, 率衆作亂, 拘龍於私第. 及我國移檄問罪, 島衆懼曰: “今日之變, 雖都督自取, 而朝鮮若絕我餉路, 移檄問罪, 則是一島之人, 均之爲叛逆, 而又有朝暮餓死之憂.”) 於是, 收耿仲裕, 王應元等十餘人斬之, 扶都督出而視事. 都督差遊擊江定國, 來索糧餉.)

35) 《備邊司謄錄》 仁祖 12년(1634) 윤8월 예단 중 인삼을 되돌려 보낸다는 江遊擊의 말을 이용하여 致謝하는 일에 대한 備邊司의 啓: “호조에서 아뢰기를, 강유격(江遊擊: 江定國)이 우리가 보낸 예단 중의 인삼을 귀국의 귀중한 물건이니 받을 수 없다는 구실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전에 헌사가 예단이 적다하여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번번이 수량을 더하여 준 것을 보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이고 …… 程龍은 명나라 조정에서 차견한 사람이거니와, 이번에 江遊擊은 본래 섬 안의 작은 관리로서 일로 인하여 들어갔다가 자문을 가지고 온 것이어서 그 일의 체도가 程龍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欽差遊擊(친차가 차결한 유격이라는 뜻임)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戶曹啓曰, 江遊擊禮單中, 人蔘托以我國貴物云云, 而不受, 其意見天使, 嫌少不受, 則我國輒加斤數, 欲踵而行之, …… 程龍, 則朝廷所差遣, 而今此江遊擊, 本來島中小官, 因事入往, 順付咨文而來, 事體大與, 程龍有別, 其自托欽差遊擊, 亦不可信也)”

朝鮮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海島를 정벌하기 위하여 기병 1,500명, 보병 4,500명을 보낸다. 後金은 皮島를 공격하기 위하여 朝鮮의 仁祖에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조선의 仁祖는 이를 거절한다. 결국 後金은 이 皮島의 해전에서 패배하였고, 6월 28일 後金은 물러가고 만다.³⁶⁾ 이 皮島는 현재 평안북도 철산군 백량면에 소재하며, 바로 江定國의 직함 안에 들어 있는 “靛島差官遊擊”의 “靛島”를 가리킨다. 《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江定國은 皮島海戰이 끝나고 약 3개월 뒤인 9월 21일부터 10월 24일과 11월 28일 3차례에 걸쳐서 조선의 인조에게 식량을 요청한 적이 있다.³⁷⁾ 위의 현판(1631.09.01)은 이때 東廟에 와서 쓴 것이다. <萬古標名>은 皮島海戰에서 막 승리를 거둔 遊擊將軍으로서의 威勢를 드러내는 현판이다. 그러나 萬古標名에는 “標名”의 원인을 살피지 못하고, “標名”의 결과만을 기리고 있다. 萬古標名の 결과만을 우려했던 그는 異國의 역사서에서 萬古汚名을 드러우게 되었다.

2.4 < 勅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 >

(1) 사진



36) 後金이 皮島海戰을 일으킨 전략적 목적은 地理的으로 明과 朝鮮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끊으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7) 《朝鮮王朝實錄》인조 9년(1631) 9월 21일: “상(仁祖)이 불려서 보자, 정국이 아리기를, ‘지금 摠鎮이 저를 위임하여 보낸 목적은 단지 서방의 양식을 구해 오라는 것입니다. 섬안의 백성들은 모두들 賢王(朝鮮의 仁祖)께서 먹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上召見之, 定國曰: ‘今者摠鎮委送卑職, 特爲西糧而來, 島中生靈, 無不望哺於賢王矣。’)”

(2) 원문관독

[中] 勅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

[右] 崇禎甲戌仲春吉日立

[左] 欽差安島衆聯屬國副總兵程龍書 落款) 天都使臣 落款) 程龍之印

(3) 번역과 풀이

[中] (명나라 神宗황제께서는) 敕書를 내려 (關羽에게) “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이라는 封號를 주시었다³⁸⁾

[右] 崇禎 甲戌년 2월 吉日에 세우다

[左] 欽差安島衆聯屬國副總兵인 程龍이 쓰다. 落款) 황제가 사시는 天都의 사신 落款) 程龍의 인

“勅”는 “勅”의 이체자이다. 勅封은 황제가 敕書를 내려 臣僚에게 封爵을 내려 주는 것을 뜻한다. 天都是 帝王의 도성, 명나라의 수도 北京을 가리킨다.

(4) 제작 시기

1634년 2월 1일. 崇禎 甲戌년은 1634년이다. 明 崇禎 7년, 朝鮮 仁祖 12년이다. 仲春은 2월이다. 吉日是 음력 초하루.

(5) 작가

명나라 사신 程龍이다. 欽差安島衆聯屬國副總兵은 그의 직함이다. “명나라 황제가 파견한(欽差) 심사사람들을 안정시키고(安島衆) 屬國과의 연합(聯屬國)의 직무를 가진 副總兵”이라는 뜻이다. 副總兵 또한 品級도 定員도 없으며, 대체로 公·侯·伯·都督으로 채워졌다. 《朝鮮王朝實錄》의 원문에 따르면, 程龍은 仁祖 11년인 1633년 음력 10월 27일 중국의 登州로부터 皮島를 거쳐 바다를 건너와서 仁祖 12년인 1634년 2월 6일 중국으로 돌아갔다.³⁹⁾ 그에 관한

38) 기존 연구는 “勅封三界伏魔大帝 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삼계의 복마대제로 책봉되었을 때 관성제군의 신위는 하늘을 떨치었도다.)”라고 번역하였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잘못된 끊어 읽기와 誤譯을 바로 잡는다.

기록은 모두 12건이 있다. 위의 현판은 그가 중국으로 되돌아가기 전인 2월 1일에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明史》에는 程龍에 관한 기록이 모두 4건 있다.⁴⁰⁾ 程龍은 조선에서 明으로 돌아가고 나서 4년 뒤에 淸나라가 淸나라를 침공하면서 淸軍과의 전투에서 전사한다.⁴¹⁾

(6) 역사배경과 의미

萬曆 42년(1614), 淸나라 제 14대 황제 神宗은 關羽에게 “三界伏魔大帝神威遠鎮天尊關聖帝君”라는 封號를 준다.⁴²⁾ 그러나 위의 현판에는 “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이라고 되어 있다. 《海東聖蹟誌》에는 “勅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振天尊關聖帝君”이라고 되어 있다. 하나는 “鎮(누르다)”자로, 하나는 “震(벼락 친)”자로, 하나는 “振(떨치다)”자로 되어 있다. “鎮”자와 “震”자와 “振”자는 발음이 같아서 서로 통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정확한 封號를 고증하는 데 있어서, 이 현판은 매우 중요한 史料의 가치가 있다. 위의 현판이 明 崇禎 7년(1634년: 인조 12년)에 제작되었으므로, 위의 封號가 내려진 뒤 20년 뒤에 만들어진 현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현판이 만들어지기 4년 전에 淸나라 思宗은 崇禎 3년(1630)에 “眞元顯應昭明翼漢天尊”이라는 封號를 내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程龍은 굳이 20년 전에 내려진 봉호를 가져 와서 쓰고 있다.

이 현판은, 關羽가 大帝·天尊·帝君의 등급으로 爵位가 높아졌으니, 그 보

39) 《朝鮮王朝實錄》: 인조 11년(1633) 10월 27일: “부총 程龍이 섬사람들을 안정시키고 屬國과 연합한다는 명목으로 등주에서 바다를 건너왔다. (副摠程龍, 以安島衆, 聯屬國爲號, 自登州越海而來.)” 인조 12년(1634) 2월 6일(계해): “부총 정룡이 떠나 돌아갔다.(程副揚發還.)”

40) 《二十四史人名索引》, (北京: 中華書局) 1998. 2472쪽.

41) 《明史·陳于王傳》: 崇禎 10년(1637) 정월, 賊(淸軍)이 병력을 나누어 江浦와 六合 및 安慶으로 쳐들어왔다. …… 3월에 적이 太湖를 공격하였고, …… 정룡 등 세 장령은 吳中の 병사 3,600명을 거느리고 鄆家店에서 적을 막았다. …… 적이 사방에서 쳐들어와서, …… 정룡은 불을 질러 스스로 불타 죽었다.(十年正月, 賊分犯江浦、六合及安慶。…… 三月, 賊犯太湖, …… 龍等三將將吳中兵三千六百, 禦之鄆家店。…… 賊四面入, …… 龍引火自焚死。)

42) 淸 趙翼(1727-1814)의 《陔餘叢考》권35에는 “四十二年又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鎮天尊、關聖帝君”이라고 쓰고 있고, 四庫全書本 《江城名蹟》에도 “四十三年加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鎮天尊關聖帝君”이라고 하여 “鎮”자를 쓰고 있다. 《山西通志》에는 “英烈四十二年十月十日加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이라고 하여 “震”자를 쓰고 있다.

다 爵位가 낮은 藩國인 朝鮮의 國王은 관우에게 존경을 표시해야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2.5 <千古完人>

(1) 사진



(2) 원문판독

[中] 千古完人

[右] 崇禎丙子歲仲秋上浣之吉

[左] 襄平弟子白登庸熏沐立

(3) 번역

[中] 영원토록(千古) 완전무결한(完) 사람(人)

[右] 明나라 崇禎 丙子(1636) 음력 8월 上旬의吉日

[左] 襄平의 弟子 白登庸이 삼가 연기로 목욕을 하고 세우다.

上浣은, 上旬의 뜻. 完人은, 完全無缺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관우를 가리킨다. 襄平은 지명이기는 하지만, 《明史》에는 나오지 않는 지명이다. 예스럽게 漢代의 지명으로 나타낸 것이다. 《漢書·地理志》에 따르면, 襄平은 遼東郡에 딸린 縣이었다. 바로 遼陽이다. 위의 현판(1636)이 만들어지기 15년 전인

1621년 淸나라의 태조인 누루하치는 여진의 부대를 이끌고 遼陽城을 점령하여 遼陽에 도읍을 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白登庸이 이 현판을 썼던 1636년 遼陽(襄平)은 이미 청나라의 점령 지역이었으므로, 이를 遼陽으로 부르지 못하고, 漢代의 지명인 襄平을 가져다 쓴 것이다. 弟子는 젊은이, 학생을 뜻한다. 白登庸은 사람이름이다. 熏沐은 연기를 쏘여 목욕하다(熏香沐浴)는 말로,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다는 뜻이다.⁴³⁾

(4) 제작 시기

1636년 음력 8월 상순의 길일. 明나라 崇禎 丙子년은 1636년이다. 조선 인조 14년.

(5) 작가

명나라 장수 白登庸이다. 《朝鮮王朝實錄》의 원문에는 仁祖 14년(1636) 7월과 9월의 기록에 각각 1건씩 모두 2건 등장한다. 《承政院日記》에는 모두 37건 등장한다. 《明史》에는 두 번 언급되어 있다. 현판에는 그의 관직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朝鮮王朝實錄》에는 그를 “副摠⁴⁴⁾”이라고 하였고, 《明史》에는 “副將”이라고 하였다. 副將은 總兵의 아래이고 參將의 위로, 이전의 副總兵에 상당하니, 두 기록이 일치한다.

(6) 역사배경과 의미

이 현판을 쓰기 약 10일 전쯤 明나라의 白登庸은, 10년 전인 1627년 丁卯胡亂으로 後金한테 제압당하였던 朝鮮의 仁祖가 진짜로 明나라를 따를 의지가 있는지를 따보기 위하여, 仁祖에게 淸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들을 정탐할 것을 권유한다.⁴⁵⁾

43) 기존 연구는 “천고의 完人”, “승정 병자년(1636) 음력 8월 상순 길일에 襄平의 제자 白登庸, 熏沐이 세움”이라고 번역하였다. “훈목”은 사람 이름이 아니다.

44) 摠은 總과 같은 자.

45) 《朝鮮王朝實錄》 인조 14년(1636) 7월 28일.

이 현판이 쓰이기 약 3개월 전인 1636년 4월 11일, 淸나라 太宗 흥타이지 (1592-1643)는 國號를 “大清”으로 바꾸고 開國皇帝가 된다. 위의 현판은 淸의 세력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朝鮮과 명나라를 치려는 전운이 감도는 一觸卽發의 시기, 한가위를 앞두고 쓰인 것이다. 그리고 白登庸의 우려대로 3개월 뒤에 바로 丙子胡亂이 터진다. 1636년 12월 2일, 淸나라 太宗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朝鮮을 공격하였고, 이듬해 1월 30일 朝鮮의 仁祖는 三田渡에서 淸의 太宗에게 항복한다. 이 이후로 朝鮮과 明의 외교관계는 완전히 끊기게 되며, 明의 관원들이 東廟에 와서 현판을 쓰는 일은 더는 없었다. 따라서 이 懸板은 명나라 사신의 마지막 현판이 된다. 이 현판(1636)이 쓰이고 나서 8년 뒤에 明(1368-1644)나라는 淸나라에 의하여 멸망하고 만다.

關羽는 建安 5년(200) 曹操에게 항복하여 그를 따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劉備에게로 돌아간 적이 있다.⁴⁶⁾ 曹操에게 항복하였으나 끝내 劉備에게 돌아갔던 關羽에게 <千古完人>의 현판을 바치는 행위를 통하여, 白登庸은 丁卯胡亂으로 後金에게 제압당하였던 朝鮮에게 끝까지 明을 따라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千古完人” 관우의 삶을 우려했던 白登庸은 위의 현판을 쓴 이듬해인 崇禎 10년(1637) 淸軍과의 전투에서 먼저 달아났고 끝내 항복한다.⁴⁷⁾ 淸에 항복하였던 白登庸이 그 뒤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⁴⁸⁾

46) 《三國志·蜀書·關羽傳》：“건안 5년(200), …… 曹公(조조)은 關羽를 사로잡아 돌아왔으며, 그를 偏將軍으로 임명하였고, 그를 아주 넉넉하게 예우하였다. …… 관우는 조공이 내린 상을 죄다 封하고, 떠남을 알리는 글을 정중히 써 놓고 원소의 군대 안에 있던 선주에게로 달려갔다. 조공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관우를 쫓아가려고 하였으나, 조공이 말하였다: “그는 그로서 그 주인을 위하여 그러는 것이니, 쫓아가지 말라.(建安五年, …… 曹公禽羽以歸, 拜爲偏將軍, 禮之甚厚. …… 羽盡封其所賜, 拜書告辭, 而奔先主於袁軍. 左右欲追之, 曹公曰: ‘彼各爲其主, 勿追也.’)”

47) 《明史·金日觀傳》：“승정 10년 봄에 大清의 군대가 朝鮮을 공격하였다. …… 4월 (大清이) 병력을 나누어 皮島를 공격하면서, 물길과 물길로 협공을 하였다. 副將인 白登庸이 먼저 달아났다. …… 백등용은 곧바로 자기 부대를 이끌고 (칭나라에) 항복하였다. (十年春, 大清兵攻朝鮮, …… 四月分兵攻皮島, 水陸夾攻. 副將白登庸先遁, …… 登庸尋帥所部降.)”

48) 野史인 趙慶男의 《續雜錄·四·戊寅》은, 白登庸이 朝鮮의 입장을 두둔하다가 沈志祥에게 피살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明史》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3. 결론

본고의 고찰 결과, 동묘의 명나라 사신이 지은 5개의 현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외교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東廟 正殿을 가리키는 <顯聖殿>과 <顯聖保藩>의 “顯聖”이라는 이름은, 《至治新刊全相平話三國志》와 《三國志通俗演義》의 소설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지어진 이름이다. 둘째, 이들 현판들의 제작 시기는 壬辰倭亂(1592-1598) 직후인 1600년(<顯聖保藩>)·1601년?(<顯聖殿>)과 皮島海戰(1631년 6월) 직후인 1631년 9월(<萬古標名>)과 丙子胡亂(1636-1637) 직전인 1634년(<勅封三界...>)·1636년(<千古完人>)에 지어진 것으로 戰爭과 관련이 있다. 셋째, 이들 현판의 작가들은 杜潛(監軍, 從4品, 按察司副使)·明使·江定國(遊擊將軍, 正3品, 都指揮僉事)·程龍(副總兵)·白登庸(副總兵)으로, 이들은 대부분 지금의 山東 半島와 遼東 半島 지역의 지방 武官들이며 그들의 職位는 세월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명나라에게 있어서 日本의 朝鮮 침략보다는 淸 세력의 확장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으며, 명에게 朝鮮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넷째, 이들 현판의 작가들이 朝鮮을 방문한 목적은 임진왜란의 수습·식량 지원 요청·동맹 강화·淸에 대한 정보수집 등으로, 朝鮮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다. 다섯째, 이들 현판들의 내용은, 명이 朝鮮을 倭軍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명과 朝鮮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에서 朝鮮의 명에 대한 信義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다. 여섯째, 丙子胡亂(1636-1637)으로 朝鮮이 淸에 항복하여 朝鮮과 명의 외교관계가 끊기면서, 명나라의 使臣들이 동묘에 와서 현판의 글을 짓는 일도 끊기게 되었다.

關羽의 廟에 걸려 있는 명나라 使臣이 지은 현판들의 내용은, 겉으로는 關羽를 기리는 종교 문화 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속으로는 명나라의 政治的·

軍事的·外交的·文化的 목적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代辯 또는 強辯하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東廟를 어떠한 철학적 관점 아래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 參考文獻 >

조선의 역사류와 야사류 및 문집 기사류는 다음 사이트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학자료포털(<http://www.kostma.net/>)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자료센터(<http://www.kostma.net/>)

관련 도서의 서지사항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1. 조선 역사류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備邊司謄錄》

2. 조선 碑文類는 직접 촬영 후 확인하였다.

《四朝御製御筆東南關王廟碑》

[朝鮮] 肅宗, <大漢朝忠節武安王贊揚銘>

[朝鮮] 英祖, <顯靈昭德武安王廟>

[朝鮮] 思悼世子, <武安王廟碑銘>

[大韓帝國] 高宗, <北廟廟庭碑>

3. 조선 野史 및 문집 기사류

[朝鮮] 申晷, 《再造藩邦志》

[朝鮮] 趙慶男, 《亂中雜錄》

- [朝鮮] 趙慶男, 《續雜錄》
[朝鮮] 鄭琢, 《藥圃集》
[朝鮮] 柳成龍, 《西厓文集》
[朝鮮] 樹軒居士, 《漢京識略》
[朝鮮] 黃玿, 《梅泉野錄》

4. 중국 역사류

- [漢] 班固,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2
[晉] 陳壽, 《三國志》, (北京: 中華書局), 1959
[清] 張廷玉, 《明史》, (北京: 中華書局), 1974
《明實錄》

5. 중국 소설류 및 필기류

- , 《至治新刊全相平話三國志》, 古本小說集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羅貫中, 《三國志通俗演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清 趙翼, 《陔餘叢考》, (上海: 商務印書館), 1957

6. 관우 사적류

- , 《海東聖蹟誌》, 檀國顯聖殿, 1876
, 《聖帝世系考證》
, 《關帝聖君五倫》

7. 정부 유적 관련 보고서류

- , 《東廟자료집》, (서울: 종로문화원), 1997
배병선 외, 《東廟의 建築》,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 《동관왕묘 종합정비계획》, (서울: 종로구청), 2011
장경희 외, 《동관왕묘 소장유물 기초학술 조사보고서》, (서울: 종로구청), 2012

< Abstract >

Dongmyo(東廟) is a Temple that people enshrine the GuanYu(關羽) who is a hero of the Chinese ancient history and the novel. The Dongmyo temple is in Seoul of Korea, and it is a Korea's Treasure No. 142. There are 22 pieces of Horizontal tablets(懸板), and 28 pieces of Pillar-boards(柱聯). 22 pieces of horizontal tablets are divided into four types. The First, those that has been put up by envoys of the Ming(明) dynasty. The second, those that has been written by Kings of the Choseon(朝鮮) dynasty. The third, those that has been built by envoys and merchants of the Qing(清) dynasty. The fourth, those that has been written by King of the Korean Empire(大韓帝國) and a nameless person.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5 pieces of horizontal tablets to be made by envoys of the Ming dynasty concretely had been written by whom, when had been written, and what the diplomatic, cultural meaning had been contained. The contents of these horizontal tablets fundamentally had spoken for political, military, diplomatic, and cultural advantage of the government of Ming.

關鍵詞/Key words: 東廟, 東關王廟, 關羽, 懸板, 柱聯, 顯聖, 明使, 三國演義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6. 31.	2015. 7. 20.	2015. 7. 22.	2015. 8. 6.	2015. 8. 31.